



9면

마이스관광지무주 매력 조명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7월 7일 금요일 (음 5월 20일) 제3300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주한 외국공관과 새만금 잼버리 성공 협업

도, 반기문 명예위원장 등  
42개국 주한외교사절단 초청  
잼버리 준비상황 공유  
영의 프로그램 현장답사  
지방정부 차원 공공외교  
확장 초석 다지는 계기도



6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주한외교사절단 초청 새만금잼버리 사전브리핑 행사에 김관영 도지사(2줄째 오른쪽)와 반기문 명예조직위원장(2줄째 왼쪽)을 비롯한 45개국 주한외교사절단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는 오는 8월 1일 개막하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공공외교의 확장을 위한 주한 외국공관과의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도는 6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명예위원장인 반기문 제8대 UN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42개국 주한 공관 54명의 외교사절단을 초청해 종합적인 잼버리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답사도 진행했다.

도는 새만금 잼버리에 152개국 전 세계 약 4만3,000명의 청소년이 모이는 만큼 대표성을 갖는 대사, 대사대리 등 외교관들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이같은 초청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사는 김관영 도지사의 환영사 강태선 조직위원장의 축사, 반기문 명예조직위원장의 기조연설로 문을 열었다

2017년 바쿠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연맹 총회에 직접 참석해 새만금 잼버리

리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반기문 명예위원장은 "스카우트의 가치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서로 닮아있다. 코로나 이후에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잼버리는 미래 세대의 적극적인 행동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며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현장 답사에서는 시범부대 및 상부 시설 현장 설명을 통해 참가자들이 실

제로 어떻게 생활할지 직접 확인하고 대집회장·직소천 과정활동장을 방문해 프로그램 현장을 살폈다

이번 사전 점검에 참가한 한 외교관은 "최근 잦은 비로 인해 배수에 관한 우려가 본국에서 있었는데 현장에서 직접 배수 시설을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었다"며 참가자들의 출입국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사관

주최 측의 깊은 배려를 느꼈다"고 전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가 새만금에 꿈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세계 청소년들도 이 곳 새만금에서 자신의 꿈을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동북아를 넘어 세계경제 중심지가 될 새만금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하루리 강력한 나라라도 혼자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하신 반 총장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연대를 통해 발전해야 한다"며 "오늘 함께한 자리를 계기로 전북도와 교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 전북특별법 교육특례 발굴 '동분서주'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자율학교 운영 특례 등 10개 발굴  
도에 제출 17개 조항 중 보류 9개, 보강 후 이달 중 추가 제출

계 진행된 전북특별법 교육특례 발굴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 17일 공포됨에 따라 급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특례 발굴 TF를 1월 27일 발족했다.

1월 30일 도청 추진단과 교육특례

(안) 협의를 거쳐 이후 3차까지의 발굴 자료 검토 및 자체 정교화 작업을 거쳐 준비현황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등 그간의 바쁜 일정을 알렸다

그리고 3월 8일 교육청·도청·전북연구원 협의를 통해 1차적으로 17개안에 대해 합의해 3월 13일 전북교육청 특례(안)이 도청 추진단에 전달됐다.

이 중 7개 조항에 대한 선정 통보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지원청 설치 특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독립 설치 특례,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특례,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 지방교육 재정 특례, 학교시설 교부금 특례, 정원 책정 특례 등이다.

더불어 1차 전부개정안 중 추가로 3개안을 요청하면서 전북교육청 교육특례(안)이 모두 10개 조항으로 확대됐다

추가안에는 자율학교 운영 특례, 농촌유학에 관한 특례,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등이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7월 중으로 2차 개정안 발굴을 위한 전북도청에 1차 제출한 17개 조항 중 보류된 9개 조항에 대해 보강 후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행안위 소위원회 국회의원 설명회도 준비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비한 특례발굴에 노력하고 있다"며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제주·세종·강원 등 타 시도와의 협력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문화재 가치 확산  
관광 활력화 도모

전북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추진 중'

전북도는 문화재의 융·복합적(교육공연·체험·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문화재 가치 확산과 지역관광 활력화 도모를 위해 도내 곳곳에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문화재 여행' 7건, '생생문화재' 14건,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11건,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7건, '고택·종가집 활용' 4건과 도 추진사업인 전라김영 활용사업 등 총 44건이 있다

문화재 여행사업은 올 상반기에 종래지향 전주를 거닐다(전주시) 등 3건을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군산의 밤, 아령으로 힐링하길(군산시) 등 4건을 운영한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잠자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의미를 발견하는 역사교육의 장이자 프로그램형 문화재 관광상품으로 기획됐다. 대표적으로 정음시의 다시 피는 녹두꽃 등이 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별로 15개소(향교 12, 서원 3) 나눠 진행한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고풍적 산사문화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으로 군산 동국사의 '동국사·군산을 일타다' 등이 있다

고택·종가집 활용사업은 고택 활용 프로그램 상설화로 전통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7가지(의, 식, 주, 의례, 전통문화, 역사, 생태문화자원체험)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도 자체사업인 전라김영 활용사업은 전주가 조선시대 전라도의 지방통치행정의 거점지임을 확인하고 역사공간을 연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라김영이 돌아왔다' 등 8개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그리고 반딧불이  
여기가 무주네!

muju  
여행문의 1899-8687  
http://tour.muju.go.kr